

#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



## 너무 멀리서 찾지 마라

정운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3800원

불교는 신을 “믿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의 수행, 마음 다스리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저 멀리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수행은 무슨...’ 이라면서 자신의 능력을 깎아 내리기도 한다.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불교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 신자들에 비해 수행을 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행이 어

려워서’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책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그렇지 않다’고 바로잡아 주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수 아사리이며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서 오랜 강의를 한 저자 정운 스님은 우리네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듯이 전한다. <불교신문>에 2년간 연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던 코너 ‘정운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에 게재된 수많은 글 중 독자들이 꼭 읽었으면

## 불교신문에 연재한 수행이야기 68편 모아

### 수행과 관련된 불교 교리 쉽게 정리

### 대학 강단서 강의의 노하우도 소개

하는 글 68개를 가려 뽑아 다듬고 보완한 이 책은 ‘수행’이라는 말이 주는 딱딱함, 어려움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해 말한다.

경전서 찾아볼 수 있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기록 등에서 보는 옛 선사들의 모습과 근현대 선사들의 일화 등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의 삶과 언행,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배울 점이 무엇인지, 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불교 교리와 함께 쉽게 설명한다. 원고지 10매 정도의

짙막한 글들은 수행과 관련된 교리를 담고 있지만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다. 그래서 삶과 수행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과 깨달음을 불러 일으킨다.

“불법은 밥 먹고 차 마시는 데 있다”고 말한 지눌 국사, 정치적 상황 때문에 22년간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그 시간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여긴 중국의 본환 선사, 불법을 구하려 찾아온 제자에게 ‘보물 창고를 집에 놔두고 왜 여기에서 찾느냐’고 말한 마조 선사 등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깨달음을 찾는 이에게는 실마를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 정운 스님은 원고 연재 기간에 대해 “허한 마음으로 원고를 시작했지만 실한 마음으로 회향”했다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별 기대 없이 허한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가 책을 내려놓는 순간, 파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이 책은 획기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옛날 이야기책 읽듯이 책에 수록된 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꾸려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이 올바른 삶을 위한 것인지 독자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닌 스스로 깨닫는 가르침은 더욱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새로나온 책

▲다라방 속의 자아들(할 스톤, 시드라 스톤 지음/안진희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1만 5천원)=다중인격장애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생각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인격은 필연적으로 ‘파편화’된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에는 대책 없는 게으름뱅이의 성향이 실재한다. 아무리 강인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에는 사소한 일에도 안절부절못하는 갓난아기의 성향이 실재한다.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아(인격, 성향)들의 파편성 혹은 다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균형 잡힌 ‘중간지대’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토록 경멸하게 만드는가? 그와 내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인다면 당신은 당신 안의 ‘외면당한 자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외면당한 자아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처벌을 받아온 에너지 패턴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그를 경멸하게 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억압한 것이지 파괴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다만 당사자에게 ‘의식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성장하면서 정교하게 ‘사회화된 자아들’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모험가, 전사, 마녀, 게으름뱅이, 호색한, 몽상가, 미치광이 예술가, 이기주의자, 안절부절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은 ‘외면당한 자아들’도 호시탐탐 우리를 조종할 기회를 엿본다. 다행인 사실은, 그 자아들이 원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들 어달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 목소리 속에는 종종 뜻밖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자아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엄연히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가 외면하는 한 계속해서 불쾌한 인생경험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창안한 ‘목소리와의 대화법’은 안전한 중간지대(자각의식)에서 온갖 자아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해준다. 만약 지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는 혼란을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 늦기 전에 다라방 속의 자아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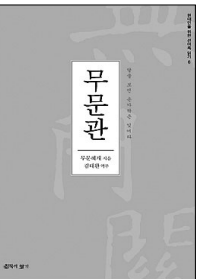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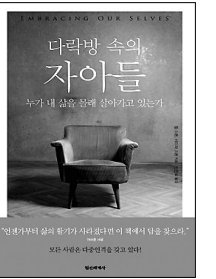
▲불교 이해의 디딤돌(김대원신 위음/운주사 펴냄/6천원)=노 보살의 원력과 신심이 담긴 사경 노트를 책으로 엮었다. 아직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두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경전 가운데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주제와 내용을 찾아 베껴 쓴 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불교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결혼해 자식들을 낳고 불교에 귀의한 지 40여 년, 불교에 대한 믿음과 공부가 갈수록 깊어진 노 보살은,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식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택한 것이 사경이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은 내용을 경전에서 찾아 옮겨 써서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란 것이다. 중간에 사고를 당하여 처음 마음먹었던 것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간략하면서도 부담 없는 분량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나 본인의 신행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주로 보살님들이 알았으면 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으며, 그에 따라 설명 또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채웠다. 보살, 인욕, 사무람십, 사십법, 허공, 보리, 대승, 팔정도, 육바라밀, 사념처, 참음의 공덕, 마염, 파마(破魔), 언어, 사제 등 불교의 주요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다.

▲무문관(무문혜개 지음/김태완 역주/침묵의 향기 펴냄/1만 3천원)=역자는 최대한 많은 사전과 문헌을 참고하여, 송대(宋代) 언어로 쓰인 <무문관>을 정확하게 번역하려했고, 그 결과로 기존 번역본들의 오역을 다수 수정했다. 몇몇 공안의 경우, 공안에 실린 이야기의 본래 모습과 변화의 과정을 참고하도록 <참고>란을 덧붙였으며, 역자의 말인 <군소리>를 각각 공안에 덧붙여 법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게 했다.

공안(公案)이란 선종서 공부인에게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는 공인된 방편이라는 뜻인데, 사실 선종의 공안이란 차별의 지혜를 단련하는 공인된 방편이다. 즉, 부처와 조사들이 법과 차별세계를 말하는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공부인을 끌어들이므로써, 차별세계에서도 벗어나고 법상(法相)에서도 벗어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선종의 공안이라는 방편인 것이다. 이렇듯 공안은 온갖 법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에도 머물지 않고, 세간의 차별에도 걸리지 않도록 단련시킨다. 그래서 법이 곧 차별이고 차별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에도 머물지 않고 차별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를 누리도록 하려는 방편인 것이다. 차별에도 밝고 법에도 밝으면, 차별도 없고 법도 없다. 차별도 없고 법도 없으면, 온갖 차별 속에서 언제나 대자유를 누린다. 선종 최고의 공안집 중 하나인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은 남송대 선승 무문혜개(無門)가 선종의 공안(公案) 48칙을 모아서 자신의 평창과 계승을 덧붙였고, 그 제자인 미연종소가 편찬해 1228년에 간행한 책이다. 원오극근의 <벽암록>, 만송행수의 <종용록>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히는 공안집이다.

안팎의 차별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여 차별 없는 세계로 들어온 뒤에는 그 차별 없는 세계 속에서 오래 오래 지내면서 이전까지의 차별에 익숙한 습기(習氣)를 녹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다시 차별세계로 나아가도 차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책은 이런 힘을 어느 정도 얻은 사람이 차별세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본질심에 꼬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차별세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코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CODA)

은 결코 무겁고 어둡거나, 슬픔으로 눈물을 쥐어짜며 독자의 감정을 북받치게 만드는 신파가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베로니크의 마음속에 뒤엉켜 둘러 붙던, 부모를 향한 감정들의 민낯을 사실적이면서 솔직하게, 너저분하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담담하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결국 이 책은 코다인 베로니크의 성장담이자 모든 코다들의 성장담이다. 동시에 자신들과 서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농민 부모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기까지 겪어야 했을 코다들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수화가 여러 언어들 중 하나로 인정받는 사회, 베로니크의 부모님과 외삼촌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수화 학교에서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 사전을 펴내고, 농민을 위한 연극 협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농민을 위한 작은 혁명들이 일어났고, 농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로니크는 결국 부모님을 지지하게 된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마침내 온 마음으로 그들의 활동에 함께한 것이다.

출간과 동시에 프랑스 언론의 주목과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로니크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쟁쟁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치고 프랑스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700만여 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는 등 흥행에 성공한 ‘미라클 벨리에’가 그 주인공이다.

<수화, 소리, 사랑해>에는 영화에 미처 담지 못한 더 많은 뒷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침묵의 세계와 소리의 세계에 한 발씩 담그고 서로의 세계와 소통하는 코다의 삶,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자 하나의 문화라는 농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농밀하게 녹아들어 있다. 농민과 코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직 생경하고 조금은 불편하다고?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낯설거나 불편한 세계가 아닌, 서로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다.

김주일 기자

##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 둔 건청인 자녀

### 농민 부모와 사는 ‘코다’의 삶 다뤄

### 드라마틱한 주인공 이야기 영화로도 제작

남모를 상처와 수많은 혼란림을 뚫く 둘러싼 코다들의 일기장이다.

<수화, 소리, 사랑해>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각 장애인’ 대신 ‘농민(農人)’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농민이라고 하면 듣지는 못해도 ‘수화(수어)’라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름대로의 문화를 지닌 집단을 뜻하지만, 청각 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장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삶이 세상의 여러 문화 가운데 하나의

## 수화, 소리, 사랑해

베로니크 플랭 글 | 권선영 옮김 | 한울림스페이스 펴냄 | 1만원

베로니크의 엄마와 아빠, 외삼촌과 외숙모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농민이다. 베로니크와 그녀의 외삼촌들은 소리가 들리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청인이다. 하지만 부모가 들을 수 없기에 코다들은 침묵의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소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가는 말한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창피함, 분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다’고. 멋모르는 여릴 때에야 수화를 할 줄 아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며 상황이 달라졌다. 농민 부모와 수화로 대화하는 것의 고단함,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는 갖가지 소음들, 집 안에서 결코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루함에 질려 버렸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창피하고, 그들에게 짜증이 나고, 그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구경하거나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베로니크는 결국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들리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농민 부모와 사는 코다의 삶을 다루었지만 이 책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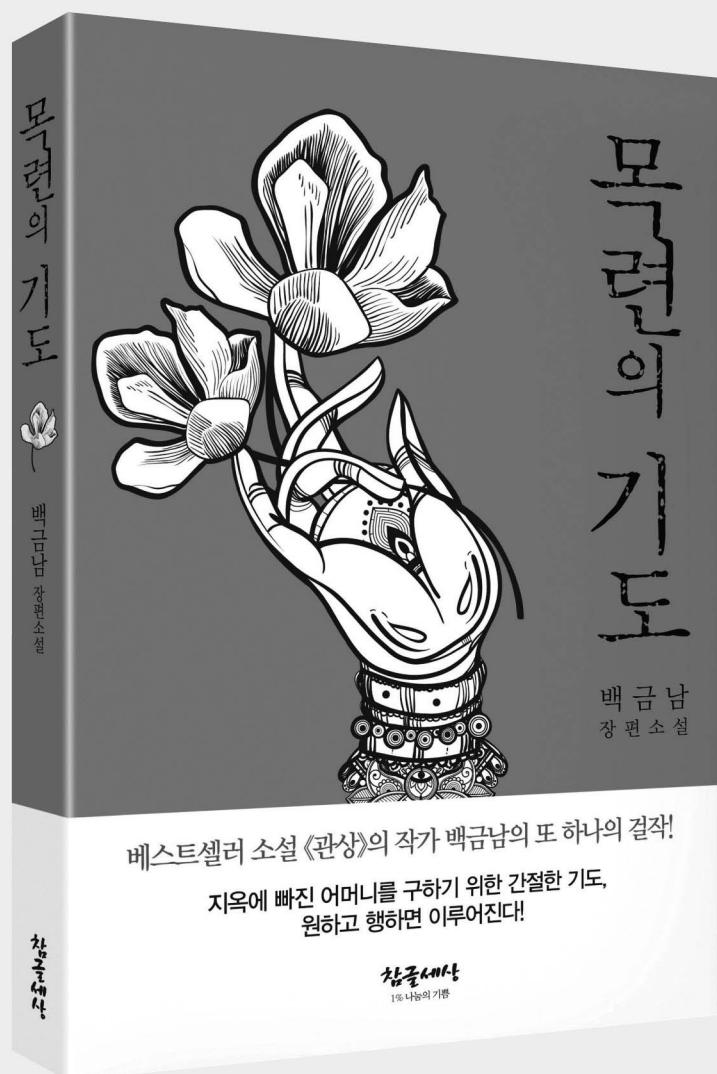
#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지에……. 그대를 인간지옥에 넣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요.”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원하고 행하면 이루어진다!

참글세상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i1003@hanmail.net

참글세상  
1% 나눔의 기쁨